

부모의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가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

The Influence of Parenting and Peer Relationship on
the Development of Child's Self-Concept : A Longitudinal Study

이 사 라*

Lee, Sarah

박 성 연**

Park, Seong Ye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developmental patterns of self-concept of pre-adolescents and adolescents by using the longitudinal data originated by the Korean Institute for Research in the Behavioral Sciences (KIRBS). Specificall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he effects of parents and peer groups on the stability and change of self-concept were examined across a 9-year-period. The subjects were 62 children(29 boys and 33 girls) from the KIRBS longitudinal data. The results showed that, peer relationships revealed consistent effects on children's self-concept from pre-adolescence to mid-adolescence. In particular, this influence was most evident at 7 years of age and at 16 years of age. However, parental influence was almost non-existent for 7-year-olds, equivalent to peer relationships for 10-year-olds, and decreased for 16-year-olds. On the whole, parental and peer influence on self-concept gradually decrease in adolescence. Nevertheless, parental and peer influence continue to maintain a certain level of influence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This study provides an understanding of developmental change and stability in the self-concept of Korean adolescents.

Key Word : 자아개념(self-concept), 종단적연구(longitudinal study), 부모의 양육행동(parent - ing behavior), 또래 관계(peer relations)

* 접수 2001년 9월 30일, 채택 2001년 10월 27일

*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시간강사, E-mail : sararose@hanmail.net

**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수

I. 서론

일반적으로 자아개념이란 자아에 대한 조직적인 형태의 지각으로서 자신의 특성이나 능력에 대한 지각, 자아와 관계된 타인이나 환경에 대한 지각, 및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속성으로 지각된 목표나 이상으로 정의된다(Rogers, 1951). 즉, 자아개념은 실존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인간행동의 현상을 설명하고 관찰된 행동을 체계화하기 위한 심리구조로서 인간의 행동으로부터 유추해낸 하나의 과정이며 직접 볼 수도 측정할 수도 없는 개념이다. 이러한 자아개념은 오랜 동안 연구자들의 주 관심사가 되어왔고 이에 따라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자아개념 발달에 관한 이론으로 Cooley의 면경자아이론과 Mead의 반영이론을 들 수 있다. Cooley(1920, 1930)의 면경자아이론(the looking-glass self-theory)에 의하면, 자아발달은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차원이 있고,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부분이 있는데, 후천적인 차원에서의 자아는 매우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의 영향에 민감하다. 결국, 면경자아이론의 주된 원리는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객체로서 자기자신에 대해 칭찬하고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Mead(1934)는 자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주장을 통해 사회적·상징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더 강조함으로써 Cooley의 이론을 보다 체계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Mead의 반영이론(reflection theory, 혹은 mirror theory)에 의하면 자아는 다른 사람이 한 개인을 어떻게 보았느냐에 의해 발달되어가며, 사회화 과정을 통해 아동은 주위사람과의 관계를 조직적으로 연관지어 자기를 객관

화시킬 수가 있다. Mead는 자기자신을 객관화시켜 인식할 수 있는 과정은 주위사람들과의 경험에서 얻어진다는 송환체계(feedback system)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론들은 자아개념 발달에 환경적 요인의 영향이 크며, 그 중에서도 아동을 둘러싼 환경가운데 부모와 또래변인이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사실상 국내외 많은 연구들에서 개인이 성장발달 하면서 결정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적 변인 중 부모와 또래변인은 자아개념 형성에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인으로 입증되어왔다(Baumrind, 1973; Lamborn, Mounts, Steinberg, & Donrbusch, 1991; Steinberg, Dornbusch, & Brown, 1992). 우선, 국내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를 애정적이고 자율적이며 합리적인 태도로 양육한다고 지각한 경우, 자녀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에 반해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제적이고 거부적이라고 지각한 경우에는 낮은 자아개념을 갖게된다(임선화, 1988; 김희경, 1990). 또한, 어머니가 수용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낼 때 자녀가 안정적이고 자신감을 가지며 자신을 가치롭게 여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현심, 최미경, 1998).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자녀에게 독립성을 강조하고 수용적인 양육행동과 더불어 온정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아동의 자아개념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준다.

국외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즉, 부모의 정서적인 돌봄은 자아개념의 긍정적인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가정의 분위기가 온화하고 가족 간에 서로 존경하면 아동들은 그들 자신에 관한 현실적인 개념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반면, 부모가 자녀에 대해 무관심했을 때 자녀들은 낮은 수준의 자아개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Rosenberg, 1985; Lamborn et al., 1991), 부모는 아동의 자아개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정 내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주된 환경이었던 유아기를 벗어나 아동기인 초등학교 시기를 맞게 되면, 아동은 학교라는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 발달적 변화를 겪게 된다. 특히, 초등학교 상급학년 어린이의 자아개념은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 계속해서 변화한다. 여러 가지 지식과 새로운 능력이 생김으로 인해 교과 외의 활동이나 복잡한 집단활동 등도 점차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의 능력과 재능은 학교 성적, 또래 집단의 승인, 운동, 그리고 또래사이에서의 인기 등에 의해 평가된다. 따라서 이시기의 자아개념은 가족 이외에 접하게 되는 의미있는 타인들(significant others), 즉, 교사나 또래의 승인과 거부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되며, 가정을 벗어난 확장된 사회적 관계의 틀과 성취에 근거하여 형성된다(송인섭, 1998). 우리나라의 경우, 또래관계와 자아개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편은 아니지만, 몇몇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또래관계가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적 변인임을 시사받을 수 있다. 즉, 또래의 수용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높게 나타나고(양원경, 1999),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당한 청소년은 전반적으로 자아가치감이 낮게 나타난다(최미경, 2000), 외국의 선행연구들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 아동이 학교에서 또래집단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면

자아개념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Bernt, 1979; Piaget, 1977),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이러한 또래의 영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McGuire, 1983).

그러나, 부모나 또래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자아개념의 변화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자아와 타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사회적 관계인 또래관계가 아동기에서보다 더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Livesley & Bromley, 1973; Wigfield, Eccles, Iver, Rueman, & Midgley, 1991). 즉, 신체적 외모, 가족과 혈족관계, 소유물 등에 대한 관심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고, 이에 비해, 우정과 친구, 이성과의 관계, 타인과의 비교 등과 같은 범주들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관심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교사나 또래의 반응이 아동기 때보다 더 민감해지고 이들의 자아개념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Eccles, Midgley, & Adler, 1984).

이상의 국외 선행연구들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되면서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더 큰 비중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모보다는 또래집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자아개념 발달에 대한 종단적 연구가 없고, 문화가 다르다는 점에서 볼 때, 한국의 상황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즉, 자아개념의 연령효과에 대한 국내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없으나 한국의 사회 문화적 배경의 특징을 미루어볼 때 가족주의와 유교적 전통사상이 여전히 남아있는 부모자녀관계에서 아동의 자아개념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사회

는 여전히 전통적 가족주의 이념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으며 '효'는 중요한 규범으로 작용하고 개인보다는 가족이 우선 시 되는 경향이 크다(김현주, 1995). 이러한 전통적 가족주의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규범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신수진, 1998), 아동의 성장발달과정에 부모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한국사회에서 자라나는 아동의 발달과정에 또래가 미치는 영향 또한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으로 예측된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 산하 12개 청소년 상담센터의 상담내용 가운데,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경험한 후 피해아의 상당수가 우울증이나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대인 기피 등의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아동 대부분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신감이 상실되어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최미경, 2000), 우리나라 경우도 아동의 전반적인 자아가치감은 또래집단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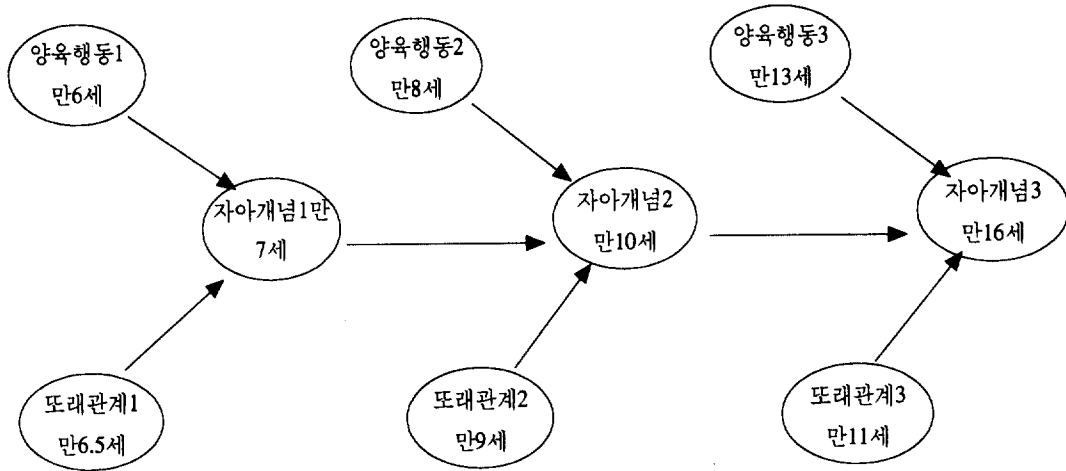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부모와 또래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시기에 어떠한 변인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부모와 또래변인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시된다. 발달적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아동은 청소년기 이전시기에는 많은 유연성을 가지면서 외부의 환경적 자극을 받아들이는 특성을 보이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유연성은 감소하여 환경적 영향을 무조건 수용

하는 정도는 약화되며 제한적이 된다(Lerner, 1986).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초등학교 때 부모나 또래의 환경적 변인이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고등학교시기에 이르면 어느 정도 감소되어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연령에 따른 자아개념의 발달적 변화나 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한 연구결과는 비 일관적이며 이에 대한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어서 일반화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Marsh, 1989). 특히, 국내에서는 연령변화에 따른 자아개념의 발달과정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즉, 지금까지 자아개념 발달에 관한 국내연구는 대부분 어느 한 연령과 다른 연령을 비교함으로써 발달적 변화를 추론하는 횡단적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집단간 비교를 통한 이러한 방법은 부모나 또래 등의 환경적 변인들이 자아개념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령적 차이만 추론할 수 있을 뿐, 부모 또는 또래의 영향이 연령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발달적 변화를 밝힐 수 없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행동과학연구소의 장기 종단자료가 있어 자아개념의 연령에 따른 발달적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과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만 6세부터 16세까지의 종단적 자료를 이용해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관계 및 두 변인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그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청소년 이전시기(7, 10세)와 청소년 중기(16세)에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관계는 자아개념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문제는 각 시기, 즉, 초등학교 1학년



주)

- 양육행동 1: 만 6세
- 양육행동 2: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 양육행동 3: 만 13세 (중학교 1학년)
- 또래관계 1: 만 6.5세
- 또래관계 2: 만 9세 (초등학교 3학년)
- 또래관계 3: 만 11세 (초등학교 5학년)
- 자아개념 1: 만 7세 (초등학교 1학년)
- 자아개념 2: 만 10세 (초등학교 4학년)
- 자아개념 3: 만 16세 (고등학교 1학년)

〈그림 1〉 연구모형

(7세), 초등학교 4학년(10세), 고등학교 1학년(16세), 별로 부모와 또래와 관계된 자아개념의 발달적 특성을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연구모형에 제시된 내용과 같다(그림 1). 그러나 이 연구모형 전체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시기별 모형을 다시 설정하였다. 각 시기별 모형을 통해 자아개념의 하위요인 및 부모양육행동의 하위요인과 또래관계의 하위요인간 변화패턴을 볼 수 있고 또래와 부모가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는 상대적 영향력에 대해 분석할 수 있으며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 또래변인의 변량을 분석할 수 있다. 앞에서 논의된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자아개념과 부모양육행동, 또래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또래관계의 영향은 청소년기에 더 클 것이며, 부모의 양육행동이 미치는 영향은 청소년기 이전시기인 아동기에 더 클 것이다.

가설 2. 자아개념 발달에 있어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관계의 전체적 영향력은 청소년기 이후부터 점차 감소 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1975년 3월에 출생한 115명(남 64

명, 여 51명)을 대상으로 26년 간 지속해온 한국행동과학연구소의 ‘한국아동의 종단적 연구 계획’(이성진, 김광웅, 1976)에 따라 수행된 장

기종단연구자료 중 일부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115명의 종단적 연구 자료 중에서, 아동이 성장하여 6세가 된 12차에서부터 16세가 된 23차까지 지속적으로 본 연구에 참가한 62명(남 29명, 여 33명)이다. 자아개념이 평가된 시기를 기준으로 한 본 연구의 시점은, 7세·10세·16세이며, 세 시점에서 자아개념 및 부모변인과 또래변인은 다음과 같이 선택하였다. 즉, 6세에 부모가 평가한 양육행동, 6.5세에 부모가 평가한 또래관계, 7세에 아동이 직접 보고한 자아개념, 8세에 부모가 평가한 양육행동, 9세에 교사가 평가한 또래관계, 10세에 아동이 직접 보고한 자아개념, 11세에 교사가 평가한 또래관계, 13세에 아동이 직접 보고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16세에 아동이 직접 보고한 자아개념을 선택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자료가 수집된 시점과 표본 수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표 1).

〈표 1〉 연구대상 및 측정시기

만 연령	N	부모의 양육행동	또래 관계	자아 개념	시기 구분
6 세	61명	○			초등 학교 1
6세 6개월	61명		○		
7 세	61명			○	
8 세	61명	○			초등 학교 4
9 세	35명		○		
10 세	61명			○	
11 세	38명		○		
13 세	58명	○			고등 학교 1
16 세	59명			○	

2. 측정도구

가. 자아개념

본 연구에서 탐색하게 될 자아개념의 발달적 변화패턴은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즉, 7세 때 측정된 ‘아동의

정의적 영역·발달에 관한 질문지(아동용)’에서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아개념에 관한 질문지와, 10세 때 측정된 ‘아동의 성장 발달에 관한 질문지(아동용)’에서 7세 때 측정된 문항과 동일한 18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아개념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또한 16세에 측정된 ‘아동의 성장 발달에 관한 질문지(아동용)’에서 자아개념에 관한 100문항을 사용하였다. 종단 자료 중 특별히 이들 세 시기를 선택한 이유는 자아개념 하위요인들의 변화패턴과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같은 요인들로 구성되어있는 자아개념문항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홍세희, 2000- I).

행동과학 연구소의 종단연구 검사요강(이상봉, 1985)에 따르면, 이들 자아개념의 하위요인으로, 신체적 자아, 가정적 자아, 사회적 자아, 도덕적 자아, 자기행동 특성 및 경향, 자아수용 및 존중의 6개 요인이 포함된다. 이러한 요인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과 직각회전(varimax)을 통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시기 모두 자아개념은 앞에서 언급한 6개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세의 경우 18개 문항 중 13개 문항이 6개 요인에 포함되었으며, 10세에는 12문항, 16세에는 35문항이 사용되었다. 7세와 10세에 측정된 자아개념 문항에서 자

1) 주성분분석을 사용한 이유는 본 연구의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자료축소를 위해서 선택하였고, 전체를 지배하는 패턴이 명확하다면 주성분분석이나 공통요인분석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이순목, 1994). 또한 직각회전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요인분석의 목적인 각 요인들의 특성을 알고자 할 때 그 목적이 단순구조를 만들고자 할 때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였다(이순목, 1995 : 박광배, 2000).

기행동 경향 및 특성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나는 친구들한테 인기가 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부지런하다', 등이고, 자기수용 및 존중에 해당되는 문항으로는, '나는 뭐든지 다 잘한다', '나는 몸이 튼튼하다', 등이다. 사회적 자아에 해당되는 문항으로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좋아한다', '나는 친구들과 잘 논다', 이며 가정적 자아는, '우리 식구는 모두 나를 좋아한다' 등이 포함되었다. 도덕적 자아에 해당되는 문항은, '나는 잘못된 일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나는 남을 잘 도와준다' 이며, 신체적 자아에 해당하는 문항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생겼다'를 예로 들 수 있다.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예'(1점), '아니오'(0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나타내도록 되어있다. 16세에 측정된 자아개념 문항 또한 7세와 10세에 측정된 내용과 유사하며 이에 대한 응답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다. 7세·10세·16세 자아개념척도의 신뢰도 범위는 10세 자아개념에서 신체적 자아의 경우 .45였으나 나머지는 .63~.90 이었다²⁾.

나.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문항은, 6세 때의 '가정환경검사'의 35문항과 8세에 측정된 '가정환경검사'의 23문항, 13세에 측정된 '아동의 성장발달에 관한 질문지(아동용)'의 30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6세의 경우 14문항이 4개 요인에 포함되었으며, 8세에는 17문항, 13세에는 9문항이 포함되었다. 6세 때 양육

행동은 4요인 즉, 수용적, 애정적(온정적), 거부적, 기대감으로 나타났으며, 8세 때의 양육행동은 거부적, 민주적, 비밀관적, 허용-자율적의 4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13세 때 측정된 부모양육행동은 요인분석결과 개방적, 거부적, 보호적, 권위적의 4요인으로 나타났다.

6세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응답은 3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수용적, 온정적, 거부적, 기대적으로 해석되며, 8세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응답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거부적, 민주적, 비 일관적, 허용-자율적이다. 13세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응답은, 3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개방적, 거부적, 보호적, 권위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도록 되어있다. 6세·8세·13세 부모양육행동척도의 신뢰도 범위는 .40~.82로 나타났다.

다. 또래관계

또래관계에 대한 문항은, 6.5세에 측정된 '자녀에 대한 의견' 질문지 중에서 또래관계를 측정한 20개 문항과, 9세에 측정된 '아동의 행동특성과 학습발달에 대한 교사용 질문지'에서 친구와의 관계를 평가한 25문항, 11세 때 측정된 '아동의 행동특성과 학습발달에 대한 교사용 질문지'중에서 또래관계를 평가한 15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6.5세 또래관계는 사회성, 리더쉽, 협동성의 3개 요인에 13개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9세 또래관계는 방해성, 리더쉽, 사회성의 3개 요인에 18개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11세 또래관계는 사회성, 방해성, 소극성의 3개 요인에 11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6.5세 또래관계에 대한 응답은,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성, 리더쉽, 협동적으로 해석되며, 9세 또래관계에 대한 응답은 3

2) 본 연구자료는 26년 간 수집된 기존의 자료를 이용한 것이므로 문항의 선택과 척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척도의 신뢰도가 조금 낮게 나타났으나 그대로 사용하였다.

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방해성, 리더쉽, 사회성이 높은 것이다. 11세 또래관계에 대한 응답은 3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사회성, 방해성, 소극성이 높은 것이다. 6.5세 · 9세 · 11세 또래관계척도의 신뢰도 범위는 11세 또래관계에서 소극성의 경우 .47였으나 나머지는 .64~.88이었다.

3. 자료분석

6세에서 16세까지의 종단자료 분석을 위해 SPSS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4.0³⁾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즉,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부모와 또래의 영향에 있어서 발달적 변화양상의 탐색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서는 잠재변인을 규명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우선 부모양육행동, 또래관계 그리고 자아개념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각 연령에서 자아개념은 6개의 요인으로, 부모양육행동은 4개의 요인으로, 또래관계는 3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Ⅲ. 결과 및 해석

부모와 또래가 자아개념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청소년 이전시기(아동기)와 청소년 중기(고등학교 1학년)로 나누어 분석하기 위해 7세 때 측정된 자아개념, 10세 때 측정된 자아개념, 16세 때 측정된 자아개념을 중심으로 각각 부모와 또래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제시의 효율성을 위해 6세에 측정된 부모의 양육행동, 6.5세에 측정된 또래관계, 7세에 측정된 자아개념을 '7세 자아개념'으로, 8세에 측정된 부모의 양육행동, 9세에 측정된 또래관계, 10세에 측정된 자아개념을 '10세 자아개념'으로, 13세에 측정된 부모의 양육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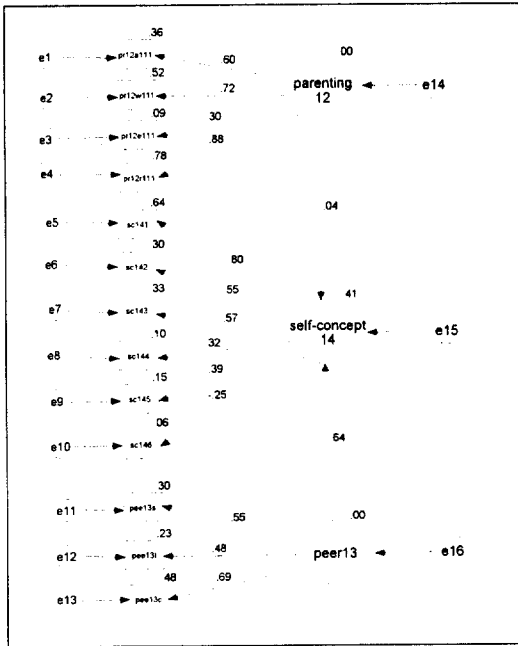
11세에 측정된 또래관계, 16세에 측정된 자아개념을 '16세 자아개념'으로 묶어서 제시하고자 한다.

1. 7세 자아개념에서의 또래와 부모의 영향

7세 자아개념에서의 또래와 부모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림 2>에서 나타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행동은 거부적(.88), 온정적(.72), 수용적(.60), 기대적(.30)의 순서로 요인부하량이 나타났고, 또래관계에서는 협동성(.69), 사회성(.55), 리더쉽(.48)의 순서로 요인부하량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 의해 부모와 또래변인이 7세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며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전체변량의 41%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양육행동에서 자아개념으로 가는 경로계수

3) 다변량분석에 사용되는 통계패키지는 LISREL, EQS, AMOS가 있는데, 그 중에서 AMOS 4.0을 선택한 것은 다른 통계패키지보다 불완전 자료(missing data)처리가 매우 쉽고 비교적 완벽하기 때문이다. 불완전자료가 빈번한 종단적 연구에서는 소실된 자료를 정확하게 추정하게 하는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방식을 제공하는 AMOS가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홍세희(2000-1)(pp.23-24) 참조.



- ※주 : ① parenting 12(6세 양육행동) - pr12a111 : 수용적, pr12w111 : 온정적, pr12e111 : 기대감, pr12r111 : 거부적 양육행동
 ② self-concept 14(7세 자아개념) - sc141 : 자기행동경향 및 특성, sc142 : 자기수용 및 존중, sc143 : 사회적 자아, sc144 : 가정적 자아, sc145 : 도덕적 자아, sc146 : 신체적 자아
 ③ peer 13(6.5세 또래관계) - pee13s : 사회성, pee13l : 리더쉽, pee13c : 협동성

<그림 2> 7세 자아개념에 대한 구조방정식 결과

치가 .04로 나타났으며 또래관계에서 자아개념으로 가는 경로계수는 .6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7세 자아개념은 부모와 또래의 영향에 의해 41%가 설명되었으며 부모보다는 또래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나타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한 7세 자아개념에서의 발달적 변화에 대한 결과 및 구조방정식의 모델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적합도 지수⁴⁾를 선택하였다. 즉, <표 2>에서 보듯이, 적합도 지수 TLI

와 CFI의 값은 각각 0.990, 0.993 이고, RMSEA는 0.061으로 나타나 <그림 2>에 제시된 7세

4)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구조 방정식이 개발된 초기에 가장 많이 쓰였던 방법은 χ^2 검증이었으나, 이 방법은 영가설의 내용이 너무 엄격하여 모형이 조금만 틀려도 쉽게 기각되며, χ^2 값이 표본크기에 너무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자료에 잘 부합되면서 동시에 간명한 모델을 선호할 수 있는 적합도 지수인 TLI, CFI, RMSEA를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많은 적합도 지수들 가운데 TLI, CFI, RMSEA만을 선택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TLI는(NNFI라고도 함), 표본의 크기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 오류가 작을수록, 모형이 간명할수록 그 값이 증가한다. 따라서 모형이 변인들 간의 관계를 잘 설명해도 그 모형이 필요이상으로 복잡하면 NNFI의 값은 높지 않을 수가 있다. CFI는 90년대 가장 인기 있는 지수의 하나이며, NFI가 표본크기에 영향 받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지수의 강점은, 보다 현실적인 가정에 기초한 비중심적 χ^2 분포를 바탕으로 개발되었고, 전집오류를 바탕으로 계산되므로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모형의 간명성이 상실된 채 불필요하게 복잡해도 CFI는 좋아질 수 있으므로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TLI, RMSEA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론모형의 적합도를 다른 모형 - 기저모형 - 의 적합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이론모형이 자료와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는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집오류를 이용해 구해지므로 표본크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또한 RMSEA의 공식에 자유도도 포함되므로 RMSEA는 모형을 평가할 때, 모형오류와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모형에 사용되는 변수의 수가 너무 작을 경우, RMSEA값은 아주 나쁜 적합도를 보이고 CFI와 TLI는 좋은 적합도를 보인다면, RMSEA값이 변수의 수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암시하므로 CFI와 TLI위주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홍세희, 2000). 적합도 지수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 ▶ CFI와 TLI : 0.9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 ▶ RMSEA : .05 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08 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10 보다 작으면 보통 적합도/.10 보다 크면 나쁜 적합도

자아개념에서 사용된 구조방정식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홍세희, 2000-II).

<표 2> 7세 자아개념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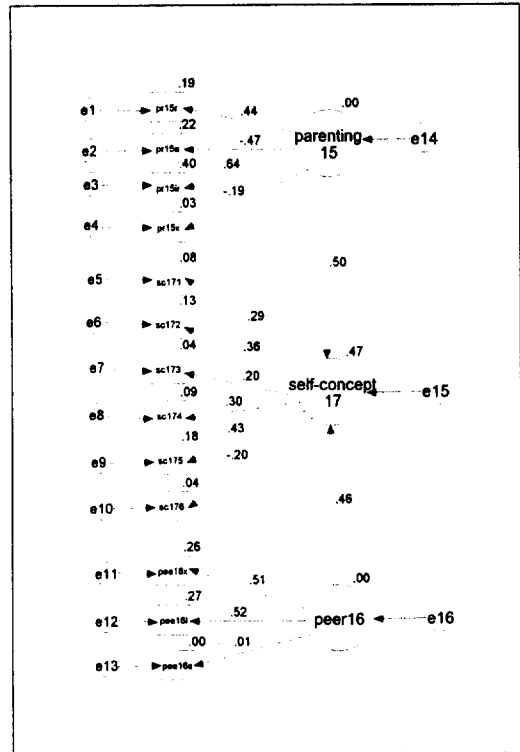
χ^2	df	TLI	CFI	RMSEA
78.299	64	0.990	0.993	0.061

2. 10세 자아개념에서의 또래와 부모의 영향

10세 자아개념에서 자아개념과 부모양육행동, 그리고 또래관계가 7세 때와는 어떻게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알기 위해 <그림 3>에서처럼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3>에서 나타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행동은 비밀관적(.64), 민주적(.47), 거부적(.44), 허용-자율적(.19)의 순서로 요인부하량이 나타났고, 또래관계에서는 리더십(.52), 방해성(.51), 사회성(.01)의 순서로 요인부하량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 의해 부모와 또래변인이 10세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며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전체변량의 47%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양육행동에서 자아개념으로 가는 경로계수치가 .50으로 나타났으며 또래관계에서 자아개념으로 가는 경로계수는 .46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10세 자아개념은 부모와 또래의 영향에 의해 47%가 설명되었으며, 이 시기에서는 부모와 또래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림 3>에서 나타난 구조방정식 모형이 적합한 모형인지의 판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적합도 지수를 산정하였다. 즉, <표 3>에 나타나 있듯이, 적합도 지수인 TLI와 CFI의 값은 각각 0.995, 0.997이고, RMSEA는 0.041로



- ※주 : ① parenting 15(8세 부모관계) - pr15r : 거부적, pr15a : 민주적, pr15ir : 비밀관적, pr15x : 허용-자율적
- ② self-concept 17(10세 자아개념) - sc171 : 자기행동경향 및 특성, sc172 : 자기수용 및 존중, sc173 : 사회적 자아, sc174 : 가정적 자아, sc175 : 도덕적 자아, sc176 : 신체적 자아
- ③ peer 16(9세 또래관계) - pee16x : 방해성, pee16l : 리더십, pee16s : 사회성

<그림 3> 10세 자아개념에 대한 구조방정식 결과

나타나 10세 자아개념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구조방정식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표 3> 10세 자아개념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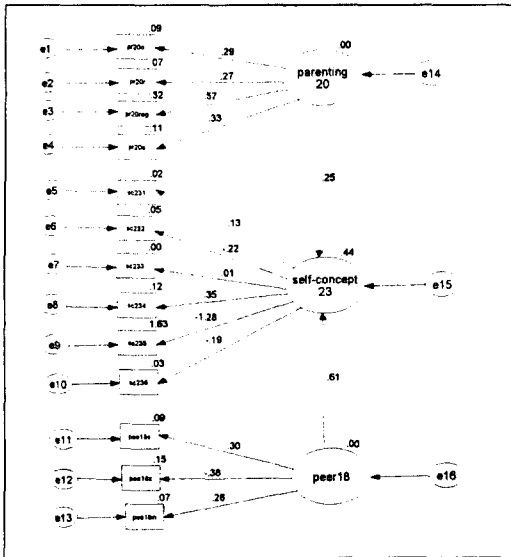
χ^2	df	TLI	CFI	RMSEA
70.534	64	0.995	0.997	0.041

3. 16세 자아개념에서의 또래와 부모의 영향

16세 자아개념에서의 발달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그림 4>와 같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림 4>에서 나타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행동은 보호적(.57), 권위적(.33), 개방적(.29), 거부적(.27)의 순서로 요인부하량이 나타났고, 또래관계는 방해성(.38), 사회성(.30), 소극성(.26)의 순서로 요인부하량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 의해 부모와 또래변인이 16세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며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전체변량의 44%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 또래의 영향력

이 10세에는 47%인 것에 비해서, 16세에는 자아개념변수에 대한 부모와 또래의 설명력이 약 3%정도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 양육행동에서 자아개념으로 가는 경로계수치가 .25로 나타났으며 또래관계에서 자아개념으로 가는 경로계수는 .6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16세 자아개념은 부모와 또래의 영향에 의해 44%가 설명되었으며 부모보다는 또래변인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표 4>에서 보듯이, 적합도 지수인 TLI와 CFI의 값은 각각 0.984, 0.989 이고, RMSEA는 0.075로 나타나 16세 자아개념에서 사용된 구조방정식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주 : ① parenting 20(13세 부모관계) - pr20a : 개방적, pr20r : 거부적, pr20reg : 보호적, pr20a : 권위적
 ② self-concept 23(16세 자아개념) - sc231 : 자기행동경향 및 특성, sc232 : 자기수용 및 존중, sc233 : 사회적 자아, sc234 : 가정적 자아, sc235 : 도덕적 자아, sc236 : 신체적 자아
 ③ peer 18(11세 또래관계) - pcc18s : 사회성, pcc18x : 방해성, pcc18in : 소극성

<그림 4> 16세 자아개념에 대한 구조방정식 결과

<표 4> 16세 자아개념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TLI	CFI	RMSEA
86.085	64	0.984	0.989	0.075

이상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하면 <표 5>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5>에서 나타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7세에는 또래의 영향이 부모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고 10세에서는 부모의 영향이 또래의 영향보다 약간 크게 나타났으며 청소년 중기인 16세 때는 다시 또래가 자아개념 발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또래의 영향은 7세 때 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10세에는 약간 감소되어 부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영향을 보이고 있으나 16세 때는 부모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부모는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시기인 7세에는 그 영향력이 거의 없었지만 초등

학교 4학년인 10세에는 또래와 비슷한 정도의 영향력을 나타내다가 고등학교 1학년인 16세에는 다시 감소되어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자아개념 발달에서 또래의 영향은 청소년기 이전부터 청소년기 중기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부모의 영향은 7세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가 10세에 또래의 영향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청소년 중기인 16세에 다시 감소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부모와 또래가 미치는 자아개념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면, 7세 자아개념에서 부모와 또래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41%로 나타났고, 10세 자아개념 형성에 부모나 또래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47%로 나타났지만, 16세 자아개념에서는 44%로서 47%에 비해 3%가 감소되었다. 즉, 자아개념 발달에 미치는 부모와 또래의 설명력은 아동기 중기에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또래의

영향은 청소년기에 더 크게 나타날 것이며 부모의 영향은 청소년기 이전시기인 아동기에 비교적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으며, '자아개념 발달에 있어 부모와 또래의 영향력은 청소년기 이후부터 점차 감소할 것이다' 라는 가설 2는 지지되었다.

〈표 5〉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나타난 발달적 변화패턴

	7세 자아개념	10세 자아개념	16세 자아개념
부모의 영향력	.04	.50	.25
또래의 영향력	.64	.46	.61
부모와 또래의 설명력	.41	.47	.44

※주 : 부모의 영향력과 또래의 영향력에서 나타난 수치는 회귀계수(regression weight)이며 세 번째 '부모와 또래의 설명력'은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로 잠재변인에 대한 전체 변량에서의 설명력을 의미한다. 즉, 부모와 또래가 자아개념이라는 변인을 설명해 주고 있는 변량을 의미한다. 회귀식에서의 R square 값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6세에서 16세에 걸쳐 수집된 종단자료를 통해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관계가 각 시기별로 자아개념의 발달과정에서 그 영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자아개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 또래의 영향 및 그 변화양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고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 사용한 구조방정식 모형 결과, 자아개념의 발달은 청소년기 이전(초등학교시기 : 본 연구에서는 10세 미만)

과 이후(고등학교시기 : 본 연구에서는 16세)에 따라 부모와 또래집단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또래의 영향은 7세에서 16세까지의 자아개념 발달에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부모의 영향은 7세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10세에 이르러 또래와 비슷한 수준으로 영향을 보이다가 청소년 중기인 16세에서는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의 증가에 따른 부모와 또래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인 7

세 때와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인 16세 때 또래의 영향은 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부모의 영향은 청소년기인 16세보다는 아동기(10세)에 크게 나타났으며 7세에는 그 영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또래의 영향은 청소년기에 더 크게 나타날 것이며 부모의 영향은 청소년기 이전 시기인 아동기에 비교적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본 연구의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개념 발달에서 부모의 영향과 비교해 볼 때, 또래의 영향은 청소년기 이전부터 청소년기 중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예상과는 달리, 청소년기와 더불어 아동기인 7세에도 또래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 점은 흥미롭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 해당하는 7세 연령에서 경험하는 가장 커다란 변화는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학교라는 맥락적 상황을 매일 경험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이전까지는 부모나 자신을 돌봐주는 양육 대리인 또는 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이 전부였지만, 학교라는 사회적 집단적 규범의 틀에서 생활하는 영역에서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또래집단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고 본다. 특히 학교를 갓 입학한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인 7세 때 또래의 영향이 부모의 영향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 점과, 비슷한 맥락에서, 중학교 환경과는 다른 새로운 맥락을 접하게 되는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인 16세 자아개념 발달에 또래의 영향이 부모의 영향보다 크게 부각된 결과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맥락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이 두 시기는 아동이 성장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경험에

있어서 또래영향이 더욱 커지는 전환적인 시점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나타나는 또래문화의 집단성과 동질성을 고려해본다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다른 아이들이 모두 알고 있는 만화 프로그램이나 오락 기계에 대해 자신만 모를 경우 그 아이는 또래 집단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또래 친구들이 모두 다니는 학원에 다니지 않게 되면 친구가 없게 되는 경우 또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동질성을 추구하는 내용이나 대상이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집단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또래집단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학령기 전반에 걸쳐 또래의 영향은 부모의 영향보다 크게 되며 특히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또래집단의 영향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특히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자신의 개별성을 성립하고자하는 시기이므로 부모보다는 또래의 영향이 훨씬 더 크게 미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청소년기 이전과 이후 전반에 걸쳐 또래의 영향이 자아개념 발달에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이러한 결과는 Harris의 이론으로도 뒷받침된다. '집단사회화이론(Group Socialization theory)'으로 잘 알려진 Harris(1995, 1998)는 아동의 사회화나 성격발달의 상당부분이 부모를 통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양육경험 이외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집단 사회화 이론에서

는 유전인자는 아이들에게 특정한 유형의 성격을 발달시키기 쉽도록 정해주지만, 환경은 그것을 바꿀 수 있다고 보며,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란 부모의 “양육환경”이 아니라 또래와 공유하는 환경을 말함으로써 또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결국, 아동은 또래집단에 의해 사회화되며 그 집단은 바로 그들에게 심리적으로 의미 있고 주관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적절한 행동과 태도에 대한 규칙과 표준을 갖게 된다. 따라서, Harris의 이론에 의하면 또래의 영향은 어린 아동에게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부모가 양육하는 비중보다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자아개념에 미치는 부모와 또래의 전체적 영향력의 변화를 측정시기마다 살펴본 결과 청소년기 자아개념의 발달에 미치는 부모와 또래의 영향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를 지지하고 있다. 즉,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7세에서 부모와 또래변인이 전체적으로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력은 7세의 41%에 비해 10세 때는 47%로 설명 변량이 6% 정도 증가하였으나, 10세에서 16세 사이에는 3%정도 감소된 44%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발달은 전 생애에 걸쳐 유연성을 가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연성은 감소하며 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10세 때보다 16세 때 설명력이 감소한 것은 자료수집 시점에서 간격이 다른 것에 기인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즉, 10세 때 측정된 자아개념과 부모 또래관계는 1, 2년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16세 자아개념은 3, 5년의 간격으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7세 때보다 16세 때 자아개념에 미치는 부모와 또래의 영향력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이다. 그러나 한편, 청소년기에 나타난 이러한 감소량은 비교적 적어(3%), 부모와 또래가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은 비교적 일정하게 지속되고 있음도 간과 할 수 없다고 본다.

본 연구는 종단적 자료 사용과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을 통해 장기간에 걸친 자아개념 발달 및 환경적 효과를 탐색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이 지닌 한계점을 보완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발달적 변화패턴을 발견하고 자아개념 발달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종단적 자료가 일반적으로 갖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한 동시집단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므로 다른 세대에 일반화 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연구대상의 동질성 문제이다. 둘째, 종단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은 시기상 다소 차이가 나며 매 시기 측정자가 다르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는 종단적 연구자료가 갖는 일반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한다는 제한으로 인해 보다 신뢰성 높은 연구결과를 얻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종단적 연구를 계획할 때에는 측정시기 및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 측정 대상자에 대한 세밀한 선행조사 및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장기종단자료처럼 다양한 변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수집된 자료는 국내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물론 본 연구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종단 자료를 이용해 탐색되지 않은 많은 연구문제에 대한 도전이 필요하며, 이러한 시도를 통해 횡단적 자료를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김미경, 김지영, 황혜정, 이성진 (1988). 한국 아동의 종단적 연구 : 제19·20차 연구결과. *행동과학연구*, 21(4). 서울 : 행동과학연구소.
- 김지영, 김정화, 이성진 (1992). 한국 아동의 종단적 연구 : 제23차 연구결과. *행동과학연구*, 25(2). 서울 : 행동과학연구소.
- 김현주 (1995). 끈끈한 연줄의 나라 한국, 정, 체면, 그리고 한국인의 인간관계. 한나래.
- 김희경 (1990).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현심, 최미경 (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2), 19-33.
- 박광배 (2000). 다변량분석의 이해. 서울 : 학지사.
- 박명애, 김규수, 이성진 (1987). 한국 아동의 종단적 연구 : 제15차 연구결과. *행동과학연구*, 20(1). 서울 : 행동과학연구소.
- 박미주, 정선아, 이성진 (1988). 한국 아동의 종단적 연구 : 제17차 연구결과. *행동과학연구*, 21(2). 서울 : 행동과학연구소.
- 박성연 (1991). 인간발달 I - 아동발달. 교육과학사.
- 박성연, 도현심, 정승원 (1996). 부모자녀관계-생태학적접근. 서울 : 학지사.
- 박정민, 왕영희, 이성진 (1988). 한국 아동의 종단적 연구 : 제18차 연구결과. *행동과학연구*, 21(3). 서울 : 행동과학연구소.
- 송인섭 (1998). 인간의 자아개념 탐구. 서울 : 학지사.
- 신수진 (1998). 한국의 가족주의 전통과 그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원경 (1999). 또래수용성 및 또래괴롭힘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우, 왕영희, 이성진 (1984). 한국 아동의 종단적 연구 : 제12·13차 연구결과. *행동과학연구*, 17(2). 서울 : 행동과학연구소.
- 이기우, 장유선, 이성진 (1986). 한국 아동의 종단적 연구 : 제14차 연구결과. *행동과학연구*, 19(1). 서울 : 행동과학연구소.
- 이기우, 최혜원, 이성진 (1987). 한국 아동의 종단적 연구 : 제16차 연구결과. *행동과학연구*, 20(2). 서울 : 행동과학연구소.
- 이상봉 (1985). 제17차 자아개념발달 검사요강. 서울 : 행동과학연구소.
- 이성진 (1998). '한국 아동의 종단적 연구'의 이론적 정당화. *연구노트*, 16(1). 서울 :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이성진, 김광웅 (1976). 한국아동의 종단적 연구계획. *행동과학연구*, 9(5), 통권 79호. 서울 :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이순목 (1994). 요인분석의 관행과 문제점. *한국심리학회지 : 산업 및 조직*, 7(1), 1-27.
- 이순목 (1995). 요인분석 I. 서울 : 학지사.
- 임선화 (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 및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경 (2000).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아의 경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행동과학연구소 (1992). 자아개념검사 실시요강. 서울 :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허준·최인규 (2000). AMOS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과 경로분석. SPSS 아카데미, 고려정보산업.
- 홍세희 (2000-I).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초. 워크샵교재. Departments of Education and Psych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 홍세희 (2000-II).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9(1), 161-177.
- Baumrind, D. (1973).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al competence through socialization. In A. D. Pick

- (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7, 3-46.
- Bee, H. (1997). *The developing child*. Longman, 279-303.
- Berndt, T. J. (1987, April). *Changes in friendship and school adjustment after the transition to junior high school*.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Baltimore, MD.
- Caspi, A. (1998). Personality development across the life course. In W. Dam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pp. 311-372). New York : Wiley.
- Cooley, C. H. (1920).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 Scribner.
- Cooley, C. H. (1930). The development of sociology of Michigan. In Angell, R. G.(Ed.), *Sociology theory and practice* (pp. 3-19). New York : Holt.
- Eccles, J. S., Midgley, C., & Adler, T.(1984). Grade-related changes in the school environment : Effects on achievement motivation. In J. G. Nicholls (Ed.), *The development of achievement motivation* (pp. 283-331). Greenwich, CT : JAI Press.
- Harris, J. R. (1995). Where is the child's environment? A group socialization theory of development. *Psychological Reivew, 102*(3), 458-489.
- Harris, J. R. (1998). *The nurture assumption : Why children turn out they way they do*. New York : Free Press.
- Lamborn, S. D., Mounts, N. S., Steinberg, L., & Dornbusch, S. M. (1991). Patterns of competenc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2*, 1049-1065.
- Lerner, R.(1986). *Concepts and theories of human development*. Random House : New York.
- Livesiey, W. J., & Bromley, D. B. (1973). *Person percept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London : Wiley.
- Marsh, H. W.(1989). Age and sex effects in multiple dimensions of self-concept : preadolescence to early adulthood.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3), 417-430.
- McGuire, W. J. (1983). A contextualist theory of knowledge : Its implications for innovations and reform in psychological research.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6* (pp. 1-47). New York : Academic Press.
- Mead, G.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iaget, J. (1977). *The development of thought : Equilibrium of cognitive structures*. New York : Viking.
- Rogers, C. R. (1951). *Client-centered therapy : It's current practice, implications and theory*. Boston : Houghton Mifflin.
- Rosenberg, M. (1985).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In R. L. Leahy(Ed.), *The development of self* (pp. 55-121). Orlando, FL : Academic Press.
- Steinberg, L., Dornbusch, S. M., & Brown, B. B. (1992). Ethnic differences in adolescence achievement : An ecological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47*, 723-729.
- Wigfield, A., Eccles, J. S., Iver, D. M., Reuman, D. A., & Midgley, C. (1991). Transitions during early adolescence : Changes in children's domain-specific self-perceptions and general self-esteem across the transition to junior high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552-565.